

청소년의 또래 괴롭힘 가해 및 피해와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 친구 지지의 영향*

The Relation between Bullying-Victimization and Adolescents' Self-Esteem: The Implication of Peer Support*

부산대학교 아동·주거학과
조교수 김희화

Dept. of Child & Housing, Pusan National Univ.
Assistant Professor : Kim, Hee-Hwa

◀ 목 차 ▶

I. 문제의 제기	IV. 논 의
II. 연구 방법	참고문헌
III. 연구결과	

<Abstract>

In a sample of 594 seventh to ninth graders,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 between bullying-victimization and the self-esteem and the implication of peer support in their relation. The results of study were as followed:

1) significant sex difference was observed in the victimization but not in the bullying. 2) the bullying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peer-related self and physical competence self, and negatively correlated with personality self among boys. Among girls, bullying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peer-related self and negatively correlated with personality self. 3) the victimization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peer-related self, academic self, physical appearance self, and physical competence self among boys. Among girls, the victimization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peer-related self, home self, and physical appearance self. 4) the peer support mediate the relation of the bullying-victimization and self-esteem. Results are discussed the role of peer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bullying-victimization and self-esteem.

주제어(Key Words): 또래 괴롭힘(bullying, victimization), 자아존중감(self-esteem), 또래지지(peer support).

* 이 연구는 부산대학교 신입교수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한 것입니다.

I. 문제의 제기

청소년은 또래관계를 통해 사회적 규범을 습득하고 정서적 지지를 받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많은 긍정적 경험을 하지만 청년 초기에는 또래와 긍정적 상호작용보다는 적대적 상호작용을 많이 하고 또래간의 부정적 평가에 민감해지면서(Gavin & Furman, 1989) 또래들간 부정적 상호작용의 한 유형으로 또래 괴롭힘 역시 경험하기 쉽다. 청년기동안 발생하기 쉬운 비행, 가출, 약물중독 등의 청소년 문제와 다르게 또래 괴롭힘은 가해와 피해라는 대립된 상황에서 두 사람 이상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면서 개입되는 가해자 및 피해자가 불안, 우울, 공격성과 미성숙 등의 문제를 경험하는(Egan & Perry, 1998; Hodges, Malone, & Perry, 1997; Hodges, Boivin, Vitaro, & Bukowski, 1999)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또래 괴롭힘 가해자 및 피해자의 적응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은 높다. 청년기의 애착(장휘숙, 1997; Cooper, Shaver, & Collins, 1987; Rice & Cummins, 1996), 학업 성취(Rosenberg, Schooler, & Schoenbach, 1989; Rosenberg, Schooler, Schoenbach, & Rosenberg, 1995), 우울(곽금주와 김근영, 1997; Rosenberg, et al., 1995), 스트레스(Abuserie, 1994; Youngs & Rathge, 1990) 등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되는 자아존중감 역시 청년기 적응에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됨에 따라 또래 괴롭힘 가해 및 피해와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또래 괴롭힘 가해와 자아존중감간의 관계를 살펴본 이해경과 김혜원(2000)의 보고에서 두 변인은 부적 관계로 나타나 가해의 증가는 자아존중감 감소와 관련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또래 괴롭힘 가해자와 일반 집단간의 자아존중감 수준을 비교한 연구에서는(양계민과 정현희, 1999; 이춘재와 곽금주, 2000) 가해집단이 일반집단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사회적 수용과 일반집단과 비슷한 수준의 전반적 자아가치감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가해 경험이 자아존중감과 부적으로 관련될 가능성이 낮음을 시사해 준다. 또한 또래 괴롭힘 가해는 자아존중감과 무

관하다고 보고되는(Rigby & Slee, 1993) 등 또래 괴롭힘 가해와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는 일관성이 없다. 한편 또래 괴롭힘 피해와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살펴 보면, 피해를 당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아진다는 일관된 결과가 보고되고(도현심과 최미경, 1998; 이해경과 김혜원, 2000; Rigby & Slee, 1993) 자아존중감 하위영역과 또래 괴롭힘 피해간의 관계를 살펴 본 연구에서도 피해는 자아존중감 일부 영역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된다. 양원경(1999)의 연구에서 괴롭힘 피해와 관련된 자아존중감의 영역은 남학생의 경우 사회적 수용도, 운동능력, 신체용모, 학업능력, 행동품행, 전반적 자아가치감 이었고 여학생의 경우는 사회적 수용도, 신체용모, 학업능력, 전반적 자아가치감으로 나타나 피해와 이러한 자아존중감 영역간에는 부적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최미경과 도현심(2000)은 단기 종단적 연구를 통해 또래 괴롭힘은 남·여학생의 사회적 수용, 신체용모, 학업능력, 전반적 자아가치감 등의 자아존중감 및 남학생의 운동능력에 까지 부적인 인과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밝힘에 따라 또래 괴롭힘 피해를 당한 청소년은 대부분의 자아존중감 영역에서 감소를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또래 괴롭힘 피해는 자아존중감과 부적 관계임을 알 수 있지만 또래 괴롭힘 가해와 자아존중감간의 관계는 애매모호한 실정이고 또한 또래 괴롭힘 가해 및 피해에 대한 선행 연구들이 다음의 사실을 간과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한가지는, 또래 괴롭힘은 또래간의 일상적 상호작용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피해와 가해가 중복적으로 발생한다는 사실을 간과한 점이다. 즉 피해를 당한 사람이라도 가해자의 공격행동을 모방하여 가해자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고 힘이 약한 가해자는 상대적으로 힘이 센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당할 수 있다. 실제로 또래 괴롭힘 피해와 가해간에 정적 관련성이 있다는 결과(김희화, 2001; Tritt & Duncan, 1997)와 가해 - 피해 경험 중복집단을 제시한 결과(한종철과 김인경, 2000; 황

성숙, 1998)는 또래 괴롭힘 가해와 피해가 중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을 지지해 준다. 그러므로 또래 괴롭힘 가해와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는 피해를 통제하고 밝혀야 하고 피해와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역시 가해의 통제를 통해 밝혀야 함을 알 수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 이런 점을 감안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 한가지는 또래 괴롭힘의 성별 차이를 감안한 또래 괴롭힘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밝힌 연구의 부족이다. 또래 괴롭힘의 가해 및 피해의 수준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다수의 연구결과에서 보고되고(박진규, 2000; 양원경, 1999; 이상균, 1999; 최미경과 도현심, 2000; Andeman & Kimweli, 1997; Bosworth, Espelage, & Simon, 1999; Natvig, Albrektsen, & Qvarnstrom, 2001; Salmivalli, Kaukiainen, Kaistaniemi, & Lagerspetz, 1999) 또래 괴롭힘의 하위 유형별 괴롭힘의 발생수준도 성별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이점숙과 유안진, 1999; 최보가와 임지영, 1999; Crick & Grotpeter, 1995; Slee, 1994). 이와 같은 또래 괴롭힘 가해 및 피해 수준의 성별 차이는 또래 괴롭힘 가해 및 피해와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역시 성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또래 괴롭힘 가해 및 피해와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변인을 고려한 연구의 부족이다. 동일 시점에서 수집한 횡단적 자료의 경우 두 변인간의 인과적 관계의 방향을 어느 한 쪽으로 설정하기란 곤란하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 측정된 또래 괴롭힘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경험한 괴롭힘을 측정한 것인 반면 자아존중감은 그러한 경험을 통해 형성된 것을 측정한 것이므로 또래 괴롭힘 경험이 자아존중감보다는 시간적으로 앞서므로 또래 괴롭힘을 원인변인 그리고 자아존중감을 결과변인으로 간주할 때 두 변인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또래 괴롭힘 가해와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의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점은 외적 사건으로서의 또래 괴롭힘 가해와 심리적 특성인 자아존중감간의 관계에 개입될 수 있는 다른 변인을 고

려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청년기에는 또래 동조성이 강해지고(Berndt, 1979; Brown, Clasen, & Eicher, 1986), 우정관계에서의 친밀성이 증가하는 시기이므로(Buhmester, 1990) 가해자들의 자아존중감 수준은 가해정도보다는 친구들의 가해자들에 대한 동조 및 가해 행동에 대한 수용에 의해 결정되어질 수 있다. 즉 가해자들은 또래 괴롭힘 가해 그 자체로서 긍정적 자아존중감을 발달시키기보다는 가해자들이 친구의 지지를 높게 생각하고 가해 행동의 정당화를 통해서만이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지는 것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본다. 이처럼 또래 괴롭힘 가해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영향은 친구 지지에 의한 간접적 영향으로 간주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또래 괴롭힘의 피해로 인한 자아존중감의 감소 역시 친구의 위로나 지지의 부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피해는 친구 지지 및 또래 지위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고(양원경, 1999; Crick & Bigbee, 1998; Hodges, et al., 1997), 친구의 지지(김희화, 1998, 박경리와 김경연, 2001; Hirsch & Rapkin, 1987) 및 우정관계의 친밀성 등(Buhmester, 1990)이 자아존중감과 밀접한 관계라는 사실은 또래 괴롭힘 피해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관계에서 친구 지지의 매개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제공해 주나 이러한 관계를 밝혀 줄 연구가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또래 괴롭힘의 가해와 피해의 중복경험을 통제하고, 성별 또래 괴롭힘 가해 및 피해의 수준을 기본적으로 비교하고 또래 괴롭힘 가해 및 피해와 자아존중감간의 상관 관계를 살펴봄에 이들 변인의 인과적 관계에서 친구 지지의 영향을 밝히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1. 성별에 따라 또래 괴롭힘 가해 및 피해는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2. 또래 괴롭힘 가해 및 피해와 자아존중감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3. 친구 지지는 또래 괴롭힘 가해 및 피해와 자아존중감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 방법

1. 조사 대상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1~3학년 594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 표집을 위해 부산시 소재 남녀 중학교 세 개교를 임의 선정하고 각 학교의 전학년에서 두 학급을 무작위 추출하였다. 선정된 학급의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담임교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선정된 표본의 수는 641명 이었으나 자료수집 결과 응답이 불성실한 47명을 제외하고 594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 남학생은 319명(53.70%)이고 여학생은 275명(46.30%)이었다.

2. 측정도구

1) 또래 괴롭힘

또래 괴롭힘 가해 및 피해를 측정하기 위해 황성숙(1999)의 또래 괴롭힘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척도는 학교생활에서 발생하는 괴롭힘 행위를 피해와 가해로 구분하여 모두 응답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피해의 문항은 '다른 아이들이 내가 인사해도 노골적으로 무시한 적이 있다' 이고 가해 문항은 '나는 다른 아이들이 인사해도 노골적으로 무시한 적이 있다' 이다. 척도의 문항은 기존 척도 문항 중 가해와 피해 각각에서 공통적으로 상호 관련성이 높은 1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가해와 피해의 응답방식을 기존 척도는 서로 다르게 측정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가해 및 피해의 중복 경험가능성을 감안하여 각각의 경험에 대한 통제가 요구되므로 가해 및 피해 경험 모두에 대해 지난 1년 간의 경험 횟수를 동일한 응답범주에 표시하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각 응답범주에 대해 없다와 1회는 '0' 점, 2-3회는 '1' 점, 4-5회는 '2' 점, 6회 이상은 '3' 점으로 점수화하여 2회 이상의 지속성을 띤 괴롭힘에 대해서만 점수화 하였다. 점수의 응답범위는 0~48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

괴롭힘 가해 및 피해 경험이 많음을 나타낸다.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가해 및 피해의 문항에 대해 Cronbach α 값을 구한 결과 각각 .84와 .85로 나타났다.

2) 자아존중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김희화(1998)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는 청소년의 가정적 자아 6문항, 학업 및 전반적 자아 10문항, 성격적 자아 6문항, 친구관련 자아 9문항, 교사관련 자아 5문항, 신체외모 자아 7문항, 신체능력 자아 6문항 등의 다양한 영역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총 4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방식은 5점 리커트 척도로 하였고 부정적 내용의 문항은 역점수화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각 영역에서 높은 자아존중감을 소유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척도의 구인 타당도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원 척도와 동일하게 7개 영역으로 구분되었고 요인의 전체 설명량은 55.51% 이었다. 원 척도에서 '학업 및 전반적 자아'로 명명한 자아존중감 영역의 문항내용 대부분이 자신의 학업 성적에 대한 수용과 학업능력에서의 유능감에서 비롯된 자아가치감 내용이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학업적 자아'로 수정하였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값을 자아존중감 각 영역별로 구한 결과 가정적 자아 .81, 성격적 자아 .80, 학업적 자아 .89, 친구관련 자아 .87, 신체외모 자아 .75, 신체능력 자아 .72, 그리고 교사관련 자아 .61로 나타났다.

3) 친구 지지

청소년이 친한 친구로부터 받는 지지와 배려를 측정하기 위해 Harter(1985)의 사회적 지지척도(Social Support Scale for Children)를 사용한 김희화(2001)의 친구 지지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의 문항은 6개로 구성되었고 응답방식은 5점 리커트 척도로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친구로부터 받는 지지가 높음을 나타낸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값이 .94로 나타났다.

3. 자료의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0.0 윈도우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성별 또래 괴롭힘 가해 및 피해의 평균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공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또래 괴롭힘 가해 및 피해와 자아존중감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피해 및 가해를 각각 통제하고 편상관계수를 구하였다. 또래 괴롭힘 가해 및 피해와 자아존중감간의 관계에서 친구 지지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별은 독립변인으로 하고 피해의 비교시는 가해를 그리고 가해의 비교시는 피해를 각각 공변인으로 하여 공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2>와 같이 나타났다.

<표 2>에 의하면 또래 괴롭힘 가해의 성별 비교 결과 남녀간의 가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피해의 비교 결과 남녀학생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F=34.41, p<.001)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피해를 많이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II. 연구결과

1. 성별에 따른 또래 괴롭힘 가해 및 피해의 차이

성별에 따른 또래 괴롭힘 가해 및 피해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성별간 또래 괴롭힘 가해 및 피해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또래 괴롭힘 가해와 피해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표 1> 성별 또래 괴롭힘 가해 및 피해의 평균과 표준편차

또래 괴롭힘 가해 및 피해	남학생		여학생	
	M	SD	M	SD
가해	11.21	9.09	7.34	7.31
피해	8.99	8.86	4.05	5.34

2. 또래 괴롭힘 가해 및 피해와 자아존중감간의 상관관계

또래 괴롭힘 가해 및 피해와 자아존중감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가해와 자아존중감간의 관계를 분석할 경우는 피해를 통제하고 피해와 자아존중감간의 관계를 분석할 때는 가해를 통제하여 편상관계수를 구한 결과 <표 3>과 같이 나타났다.

<표 3>의 결과를 또래 괴롭힘 가해와 피해에 따라 성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해와 관련된 남아의 자아존중감 영역을 살펴보면, 성격적 자아(r=-.22, p<.001)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친구관련 자아(r=.14, p<.05) 및 신체능력 자아(r=.12, p<.05)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와 관련된 여아의 자아존중감 영역을 살펴 보면, 친구관련 자아(r=.17, p<.01)와는 정적 상

<표 2> 성별에 따른 또래 괴롭힘 가해 및 피해 점수의 공변량분석결과

변인	자유도	자승화	평균자승화	F	
가해	공변인	1	10801.70	10801.70	211.83 *
	집단간	1	141.23	141.23	2.77
	오차	591	30136.20	50.99	
	전체	594	95811.00		
피해	공변인	1	8644.80	8644.80	211.83 *
	집단간	1	1404.08	1404.08	34.41 *
	오차	591	24118.56	40.81	
	전체	594	63053.00		

* p<.001

〈표 3〉 또래 괴롭힘 가해 및 피해와 자아존중감간의 상관관계

	가 해		피 해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가정적 자아	-.06	.01	-.07	-.14*
친구관련자아	.14*	.17**	-.31***	-.25***
교사관련자아	-.10	-.11	-.11	.01
학업적 자아	.07	-.03	-.17**	.03
신체외모자아	.08	.01	-.29***	-.14*
신체능력자아	.12*	.05	-.25***	-.09
성격적 자아	-.22***	-.23***	-.07	.01

* p<.05, **p<.01, ***p<.001

관이 있으나 성격적 자아($r=-.23, p<.001$)와 부적 상관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해경험을 많이 할수록 남녀 청소년은 높은 친구관련 자아를 가지기 쉽고 남자는 신체 운동적인 면에서 자신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기도 하지만 남녀 모두 가해경험을 많이 할수록 성격적 자아는 감소함을 알 수 있다.

피해와 관련된 자아존중감 영역을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친구관련 자아($r=-.31, p<.001$), 신체외모 자아($r=-.29, p<.001$), 신체능력 자아($r=-.25, p<.001$), 학업적 자아($r=-.17, p<.01$)순으로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 친구관련 자아($r=-.25, p<.001$), 가정적 자아($r=-.14, p<.05$), 신체외모 자아($r=-.14, p<.05$)순으로 부적 상관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경험을 통해 남학생은 친구관련 자아, 신체외모 자아, 신체능력 자아, 학업적 자아 등의 영역에서 감소를 경험하고 여학생은 친구관련 자아, 가정적 자아 및 신체외모 자아의 감소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또래 괴롭힘과 자아존중감간의 관계에서 친구 지지의 영향

또래 괴롭힘과 자아존중감간의 관계에서 친구 지지의 영향은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매개 관계 분석방법에 근거하여 살펴 보았다. 매개 관계가 이뤄지기 위한 조건은 첫째, 독립변인이 매개변

인과 유의미한 관계이고 둘째, 독립변인이 종속변인과 유의미한 관계이어야 하고 셋째, 매개변인이 종속변인과 유의미한 관계이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조건 모두가 충족되고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효과가 매개변인을 통제했을 경우 감소하거나 무의미해진다면 매개가 이뤄진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독립변인인 또래 괴롭힘 가해 및 피해, 종속변인인 자아존중감, 매개변인인 친구 지지 변인들간의 매개 관계 조건의 충족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위 주장에 근거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조건의 충족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또래 괴롭힘 가해 및 피해와 친구 지지간의 상관관계를 성별로 분석한 결과 또래 괴롭힘 가해와 친구 지지간의 상관관계수는 남녀 각각 .15($p<.05$)와 .17($p<.01$)로 유의미한 관계로 나타났고, 피해와 친구 지지간의 상관관계수도 남녀 각각 -.28($p<.01$)과 -.18($p<.01$)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둘째 조건을 충족시키는 자아존중감 영역은 연구문제 2번의 결과에 근거하면 남자의 친구관련 자아, 학업적 자아, 신체외모 자아, 신체능력 자아 및 성격적 자아이고 여자의 가정적 자아, 친구관련 자아, 신체외모 자아 등임을 알 수 있다. 셋째조건의 충족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매개변인으로 선정된 친구 지지와 자아존중감 각 영역간의 상관관계를 성별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친구 지지는 성격적 자아를 제외한 자아존중감 모든 영역과 상관관계수 .63~.19($p<.01, p<.001$)범위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에 의하여 친구지지의 매개 관계 역할을 검증하기 위한 세가지 조건 모두가 충족되는 자아존중감 영역은 남녀 각각 다음과 같다. 남학생의 경우 친구관련 자아, 학업적 자아, 신체외모 자아 및 신체능력 자아이고 여학생의 경우는 가정적 자아, 친구관련 자아 및 신체외모 자아이다.

1) 또래 괴롭힘 가해와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에서 친구 지지의 영향

또래 괴롭힘 가해와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에서 친구 지지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매개 관계 검증

조건을 충족시키는 남녀 학생의 자아존중감 영역 각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또래 괴롭힘 가해와 피해의 중복성을 고려하여 자아존중감에 대한 피해의 영향을 통제하고자 1단계에 투입한 후 가해를 2단계에 투입하고 마지막으로 친구 지지를 3단계에 투입하였다. 우선 독립변인들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가해와 친구지지 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 남녀 각각 .15($p<.05$)와 .17($p<.01$)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아존중감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결과를 남녀별로 제시하면 <표 4>, <표 5>와 같다.

<표 4>의 결과에서 Baron과 Kenny(1986)의 매개관계 검토기준에 근거하여 매개변인인 친구 지지를 포함시킨 전후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가해의 영향력을 비교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친구관련 자아에 대한 또래 괴롭힘 가해는 피해의 영향을 통제한 후에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beta=.15$, $p<.05$) 매개변인인 친구 지지가 포함됨에 따라 가해의 영향은 무의미해졌다($\beta=.09$, N.S). 따라서 친구

<표 4> 남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또래 괴롭힘 가해와 친구 지지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변인	친구관련 자아		학업적 자아		신체외모 자아		신체능력 자아	
	β	ΔR^2	β	ΔR^2	β	ΔR^2	β	ΔR^2
1단계 피 해	.00	.00	-.14*	.02	-.31***	.09	-.22***	.05
2단계 피 해	-.34***		-.18**		-.35**		-.28***	
가 해	.15*	.09	.09	.01	.10	.01	.15*	.01
3단계 피 해	-.19**		-.16*		-.27***		-.23**	
가 해	.09		.07		.06		.12	
친구지지	.47***	.21	.11*	.01	.23***	.05	.16**	.03
전체R ²		.30		.04		.15		.09

* $p<.05$, ** $p<.01$, *** $p<.001$

<표 5> 여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또래 괴롭힘 가해와 친구 지지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변인	가정적 자아		친구관련자아		신체외모 자아	
	β	ΔR^2	β	ΔR^2	β	ΔR^2
1단계 피 해	-.21**	.04	-.19**	.04	-.15*	.02
2단계 피 해	-.21**		-.32***		-.15*	
가 해	.02	.00	.21**	.02	.00	.00
3단계 피 해	-.14		-.16*		-.05	
가 해	-.06		.07		-.09	
친구지지	.32***	.10	.61***	.35	.43***	.18
전체R ²		.14		.41		.20

* $p<.05$, ** $p<.01$, *** $p<.001$

관련 자아에 대한 가해의 영향은 가해 그 자체의 영향보다는 친구 지지에 의한 간접적 영향에 기인함을 알 수 있다. 신체능력 자아에 대한 또래 괴롭힘 가해의 영향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beta=.15, p<.05$) 친구 지지가 포함됨에 따라 가해 ($\beta=.12, NS$)의 영향은 무의미해졌다. 이는 신체능력 자아에 대한 가해의 영향 역시 친구 지지에 의한 간접적 영향이 큼을 나타내 준다. 학업적 자아와 신체외모 자아에 대한 가해의 영향은 피해의 영향을 통제할 경우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가해가 남학생의 이러한 자아존중감 영역에 대해 인과적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는 남학생 가해자들의 친구관련 자아와 신체능력 자아의 증가는 가해 경험 그 자체보다는 가해자들이 지각한 친구들의 지지에 기인함을 의미한다.

<표 5>의 결과에서 매개 변인인 친구 지지를 포함시킨 전후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가해의 영향력을 비교해서 살펴보면, 친구관련 자아에 대한 또래 괴롭힘 가해는 피해의 영향을 통제 한 후에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beta=.21, p<.001$) 매개변인인 친구 지지가 포함됨에 따라 가해의 영향은 무의미해졌다($\beta=.07, NS$). 친구관련 자아와 신체외모 자아에 대한 가해의 영향은 피해의 영향을 통제할 경우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가해가 여학생의 이러한 자아존중감 영역에 대해 인과적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학생의 친구관련 자아에 대한 가해의 영향은 가해자들의 가해경험 정도에 의해서 보다는 친구 지지에 의한 간접적 영향임을 알 수 있다.

2) 또래 괴롭힘 피해와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에서 친구 지지의 영향

또래 괴롭힘 피해와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에서 친구 지지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매개 관계 검증 조건을 충족시키는 남녀 학생의 자아존중감 영역 각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또래 괴롭힘 가해와 피해의 중복성을 고려하여 자아존중감에 대한 가해의 영향을 통제하고자 1단계에 투입한 후 피해를 2단계에 투입하고 마지막으로 친구 지지를 3단계에 투입하였다. 우선 독립변인들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와 친구 지지 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 남녀 각각 $-.28(p<.01)$ 과 $-.18(p<.01)$ 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아존중감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결과를 남녀별로 제시하면 <표 6>, <표 7>과 같다.

<표 6>의 결과를 매개 변인인 친구 지지를 포함

<표 6> 남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또래 괴롭힘 피해와 친구 지지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변인	친구관련 자아		학업적 자아		신체외모 자아		신체능력 자아	
	β	ΔR^2	β	ΔR^2	β	ΔR^2	β	ΔR^2
1단계 가 해	.00	.00	.01	.00	-.07	.00	.01	.00
2단계 가 해 피 해	.15* -.34***	.09	.09 -.18 **	.03	.10 -.35 **	.10	.15* -.28***	.06
3단계 가 해 피 해 친구지지	.09 -.19** .47***	.21	.07 -.16* .11*	.01	.06 -.27*** .23***	.05	.12 -.23** .16**	.03
전체R ²		.30		.04		.15		.09

* $p \leq .05$, ** $p < .01$, *** $p < .001$

<표 7> 여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또래 괴롭힘 피해와 친구 지지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변인	가정적 자아		친구관련자아		신체외모 자아	
	β	ΔR^2	β	ΔR^2	β	ΔR^2
1단계 가 해	-12*	.02	.00	.00	-.09	.00
2단계 가 해	.02		.21**		.00	
피 해	-.21**	.02	-.32***	.06	-.15*	.02
3단계 가 해	-.06		.07		-.09	
피 해	-.14		-.16*		-.05	
친구지지	.32***	.10	.61***	.35	.43***	.18
전체 R ²		.14		.41		.20

* p<.05, **p<.01, ***p<.001

시킨 전후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피해의 영향력을 비교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친구관련 자아에 대한 또래 괴롭힘 피해의 영향은 가해의 영향을 통제 한 후에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beta=-.34$, $p<.001$) 매개 변인인 친구 지지가 포함됨에 따라 피해의 영향력이 감소하였다($\beta=-.19$, $p<.01$). 학업적 자아($\beta=-.18$, $p<.01$)와 신체외모 자아($\beta=-.35$, $p<.01$) 및 신체능력 자아($\beta=-.28$, $p<.001$)에 대한 피해의 영향력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친구 지지가 포함됨에 따라 피해의 영향력이 각각 감소($\beta=-.16$, $p<.05$, $\beta=-.27$, $p<.001$, $\beta=-.23$, $p<.01$)하는 것으로 나타나 또래 괴롭힘 피해로 인한 이러한 자아존중감 영역에서의 감소는 친구 지지에 의해 부분적으로 완화될 수 있음을 제시해 준다.

<표 7>에서 친구 지지를 포함시킨 전후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피해의 영향력을 비교해서 살펴보면, 가정적 자아($\beta=-.21$, $p<.01$)와 신체외모 자아($\beta=-.15$, $p<.05$)에 대한 피해의 영향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친구 지지가 포함됨에 따라 피해의 영향이 무의미해 졌다($\beta=-.14$, N.S, $\beta=-.05$, N.S). 따라서 여학생의 가정적 자아와 신체외모 자아의 피해로 인한 감소는 피해 경험 정도에 의한 직접적 영향이라기 보다는 친구로부터 받는 친구 지지의 간접적 영향에 기인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친구관련 자아에 대한 피해의 영향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beta=-.32$, $p<.001$) 친구 지지가 포함됨에 따라 영향력이 감소하여($\beta=-.16$, $p<.05$) 친구관련 자아에 대한 피해의 영향은 친구 지지에 의해 부분적으로 완화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IV. 논 의

본 연구는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또래 괴롭힘 가해 및 피해의 차이 및 이들 변인과 자아존중감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가해 및 피해와 자아존중감간의 관계에서 친구지지의 영향을 밝히고자 실시되었다. 연구문제에 따라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또래 괴롭힘 가해의 성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녀 학생간의 차이가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아가 여아보다 많은 가해를 한다는 보고들(Bosworth, et al, 1999; Natvig, et al, 1999; 이상균, 1999)과 일치하지 않으나 본 연구에서는 피해 경험을 통제 한 상태에서 성별 가해를 비교한 것으로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높다고 볼 때, 청소년 여학생들 사이에서도 가해가 남학생과 비슷한 수준으로 발생하는 경향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즉 또래 괴롭힘 중 언어적 괴롭힘이나 관계적 따돌림과 같은 소극적 형태의 괴롭힘이 증가

함에 따라 여학생의 가해도 남학생 못지 않은 수준으로 이뤄진다고 할 수 있겠다. 또래 괴롭힘 피해의 성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남학생의 피해가 여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들 보다 더 많은 피해를 경험한다는 보고(양원경, 1999; 최미경과 도현심, 2000; Anderman & Kimweri, 1997; Cleary, 2000; Rigby & Slee, 1991; Rigby & Cox, 1997)와 일치한다. 이와 같이 성별에 따른 또래 괴롭힘 피해의 차이가 있다는 결과는 괴롭힘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피해 청소년의 심리적 행동적 특성 등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하므로 또래 괴롭힘 연구에서 성별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성별에 따른 또래 괴롭힘의 가해 및 피해의 수준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공변인의 영향이 유의미하게 나타난 결과는 또래 괴롭힘 가해와 피해간의 관련성을 밝힌 결과(김희화, 2001; Tritt & Duncan, 1997)와 일치하고 또래 괴롭힘은 단지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고정된 지위속에서 반복적으로만 발생하기보다는 괴롭힘을 당하는 자도 타인을 괴롭히는 형태로도 발생하기 쉬운 현상임을 제시해 준다. 또래 괴롭힘의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괴롭힘에 대한 연구가 이뤄질 때 괴롭힘 개입자에 대한 지도 및 괴롭힘 예방에 적합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래 괴롭힘 가해 및 피해와 자아존중감간의 상관 관계를 성별로 살펴 본 결과에서 먼저, 또래 괴롭힘 가해는 남학생의 경우 성격적 자아와 부적 상관을 나타냈고 친구관련 자아 및 신체능력 자아와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여학생의 가해는 성격적 자아와 부적 상관을 나타냈고 친구관련 자아와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와 같이 가해가 청소년의 일부 자아존중감 영역과 정적·부적 관련이 있고 성별에 따라 가해와 관련되는 자아존중감 영역이 다르게 나타난 결과는 두 변인간의 관련성이 없음을 보고한 Rigby와 Slee(1993)의 보고와는 불일치하나 두 변인간의 부적 관련성을 밝힌 이해경과 김혜원(2000)의 결과와는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 성격적 자아와 가해간에 부적관계로 나타난 결

과를 가해와 분노간의 정적 관련성을 밝힌 Bosworth들의(1999) 결과와 연관시켜 보면 가해 행동을 하는 남녀 청소년은 화를 잘 통제하지 못하여 분노를 잘 표출하는 성격적 문제를 지니고 있고 이러한 자신의 성격을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남녀 모두 또래를 괴롭히는 이유가 또래들간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견해(Hanish, 2000)와 일치하게 가해와 친구관련 자아간에 정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나타났다. 특히 남학생의 가해와 신체능력 자아간의 긍정적 관계는 가해자는 피해자보다 신체적으로 크고 강하다는(Olweus, 1993)점과 일치하는 것으로서 남학생들간에는 가해가 신체적 우월감을 획득하는 기회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또래 괴롭힘 가해라는 동일한 경험이 남녀 청소년들의 친구관련 자아와는 정적 관계를 가지나 성격적 자아와는 부적 관계를 가진다는 사실은 또래 괴롭힘 가해는 청소년의 각 자아존중감 발달간의 모순을 초래하는 혼동스런 경험임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피해와 자아존중감 간의 관련성을 살펴 본 결과 남학생의 경우, 피해는 친구관련 자아, 신체외모 자아, 신체능력 자아, 학업적 자아와 부적 상관을 나타냈고 여학생의 경우 친구관련 자아, 가정적 자아, 신체외모 자아와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또래 괴롭힘 피해와 자아존중감 간의 부적 관련성을 밝힌 다수의 연구결과(도현심과 최미경, 1998; 이해경과 김혜원, 2000; Rigby & Slee, 1993)와 일치하고 특히 본 연구는 가해의 통제를 통한 피해와 자아존중감간의 관련성을 밝힌 연구결과로서 피해는 다양한 자아존중감 영역에서 감소를 초래한다는 사실이 재확인되었다. 여학생에게서만 피해와 가정적 자아간의 관계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 결과를 남아보다 여아의 부모에 대한 애착이 높고(장휘숙, 1997) 여아의 괴롭힘 피해와 모의 온정성간에 관련성이 있다는 사실(도현심과 최미경, 1998)과 연관시켜 보면, 남학생과 다르게 여학생들의 또래간 부정적 경험은 자신과 정서적으로 긴밀하게 유대를 맺는 어머니와 관계 및 가정 생활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남학생에게서만 또래 괴롭힘 피해

가 학업능력 자아 및 신체능력 자아와 부적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피해와 신체적 힘간의 부적 상관을 밝힌 연구(Hodges, et al., 1997)와 일치하고, 남학생에게 성취 지향적 태도를 강조하고 운동 능력을 남성성의 주된 특성으로 여기는 우리 사회의 성별에 따른 사회화의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로 여겨진다. 성별에 관계없이 최미경과 도현심(2000), 양원경(1999)의 결과와 일치하게 피해는 친구관련 자아의 감소와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또래 괴롭힘 피해가 또래 거부와 관계 있다는 점(이점숙과 유안진, 1999)에서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남녀 청소년은 피해를 자신에 대한 또래들의 거부로 인식함으로써 자신을 또래로부터 인정과 신뢰를 받지 못하는 존재이자 또래관계에서 중요하지 않은 인물로 간주하기 쉬움을 알 수 있다. 피해와 신체 외모자아간의 부적 관련성은 피해자 집단은 낮은 신체상(한종철과 김인경, 2000)을 가진다는 결과와 일치하고 연구 대상자가 청년초기에 해당하는 중학생으로 이들은 사춘기의 급격한 신체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고 현재 외모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이 높은 시대상이 반영된 결과로 볼 때 또래 괴롭힘 피해는 청소년의 신체외모 자아에 대한 부정적 지각과도 밀접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잘 울고, 두드러지게 불안하는 등 성격적 문제를 지닌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것(Hodges, et al., 1997; Perry, Williard, & Perry, 1990; Schwartz, Dodge, & Coie, 1993)과 반대로 본 연구결과 성격적 자아와 피해간의 관계가 무의미 한 것으로 나타난 점은 피해를 많이 경험하는 청소년 그들 스스로는 자신들의 성격적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고 있음을 제시해 준다.

또래 괴롭힘 가해 및 피해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영향에서 친구 지지의 영향을 살펴 본 결과, 남학생의 경우 친구관련 자아 및 신체능력 자아에 대한 또래 괴롭힘 가해의 영향은 친구 지지에 의해 완전 매개되고 피해의 영향은 친구 지지에 의해 부분적으로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적 자아와 신체외모 자아에 대한 피해의 영향 역시 친구 지지에

의해 부분적으로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 친구관련 자아에 대한 가해의 영향은 친구 지지에 의해 완전 매개되고 피해의 영향은 친구 지지에 의해 부분적으로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적 자아에 대한 피해의 영향은 친구 지지에 의해 부분적으로 매개되나 신체 외모자아에 대한 피해의 영향은 친구 지지에 의해 완전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가장 주목할 수 있는 결과는 또래 괴롭힘 가해와 남녀 학생의 친구관련 자아 및 남학생의 신체능력 자아간의 관계에서 나타난 친구 지지의 영향이다. 이는 또래 괴롭힘 가해를 많이 한 청소년의 친구관련 자아 및 신체능력 자아의 증가는 가해 경험의 증가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가해자들이 지각하는 친구의 지지에 기인한다는 것을 제시해 준다. 이런 사실은 행복감과 부적 관련성을 나타내나(Rigby & Slee, 1993), 분노, 우울, 충동성 등 부적응적 특성과 정적 관계인(Bosworth, et al., 1999) 또래 괴롭힘 가해가 청소년 적응의 증대 요인인지 저해 요인인지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해 경험 그 자체가 청소년의 적응을 증진시키는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음을 명백히 해준다. 또한 공격적 거부아들은 타인의 거부를 왜곡하여 사회적 수용을 높게 지각한다(Zakriski & Coie, 1996)는 사실과 연관시켜보면 가해를 많이 하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증가는 친구의 지지에 대한 객관적 판단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자기 보호적으로 왜곡하여 판단한 것에 기인함을 추측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가해자들의 자기 보호적 성향에 의한 왜곡된 또래 평가에 기인한 자아존중감의 발달은 가해남아의 방어적 자기 중심성(defensive egotism) 특성을 통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즉 또래 괴롭힘 상황에 개입되는 다양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구조를 밝힌 연구결과(Salmivalli et al., 1999) 가해 남학생들은 타인으로부터 주목받기를 원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 지나치게 많이 생각하고,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는 전형적인 자기 방어적이고 자만하는 자아존중감 특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의 친구관련 자아, 학업적 자아, 신체

능력 자아, 신체외모 자아, 가정적 자아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자아존중감 감소가 피해의 직접적 영향 못지 않게 친구 지지를 통한 간접적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는 또래 괴롭힘 피해로 인한 자아존중감의 감소가 친구 지지에 의해 부분적으로 완화될 수 있음을 제시해 준다. 즉 또래 괴롭힘을 많이 당한 청소년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자아존중감 감소는 괴롭힘의 고통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지지해줄 친밀한 친구관계의 형성을 통해 완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피해로 인한 남학생의 신체외모 자아의 감소는 친구 지지에 의해 부분적으로 매개되나 여학생의 경우는 친구 지지에 의해 완전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청소년의 신체외모에 대한 판단 시 자신의 주관적 평가보다는 또래의 수용이 중요한 청년기의 특징을 반영한 것으로 여겨지고 특히 사춘기의 외모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외모에 대한 중요도가 남학생보다 높은 여학생의 경우, 괴롭힘 피해에 기인한 부정적 신체상은 피해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친구 지지의 결여에 기인한 것임을 제시해 준다.

한편, 또래 괴롭힘 가해 및 피해와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에서 친구 지지의 매개 효과에 대한 분석결과에서 흥미로운 점은 친구 지지의 차별적 영향이다. 즉 친구 지지는 가해자의 가해 경험 증가에 따른 왜곡된 자아존중감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피해자의 피해로 인한 자아존중감의 감소를 완화할 수 있는 요인으로 나타난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또래 괴롭힘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차별적 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즉 또래지위의 상승 및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서 또래 괴롭힘 가해 행동의 증가를 줄이기 위해서 가해자를 대상으로 친구 지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평가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고 또래 괴롭힘 피해로 인한 자아존중감의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친밀하고 상호적인 또래관계 기술 습득에 초점을 둔 교육을 시켜야 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또래 괴롭힘 가해 및 피해와 관련된 자아존중감 영역은 성별에 따라 다르고 또래 괴롭힘 가해는 자아존

중감 영역들과 정적 관계 및 부적 관계를 가지나 피해는 자아존중감 영역들과 부적으로 관련된다. 또래 괴롭힘 가해 및 피해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인과적 영향에서 가해로 인한 자아존중감의 증가는 또래 괴롭힘의 직접적 영향이라기 보다는 친구 지지에 의해 간접적으로 가능하고 피해로 인한 자아존중감의 감소는 친구 지지에 의해 완화될 수 있다.

또래 괴롭힘 가해 및 피해와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에 대한 다수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또래 괴롭힘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가 애매모호한 상태였으나 본 연구는 가해 및 피해를 동시에 측정하고 피해와 가해 각각에 대립되는 또래 괴롭힘 경험의 통제를 통해 괴롭힘과 자아존중감간의 상관 관계 및 두 변인사이에서의 친구 지지의 영향을 밝힘으로써 또래 괴롭힘 가해자들의 자아존중감의 특징 및 피해자들의 자아존중감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친구 지지의 중요성을 밝힌 데 의의를 둔다. 하지만 본 연구는 또래 괴롭힘과 자아존중감간의 관계에서 친구 지지의 영향을 밝히기 위한 인과적 관계 분석과정에서 종단적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제한점이 있으므로 종단적 자료를 통한 재검증이 있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박금주, 김근영(1997). 자기지각 검사에 의한 자기개념 연구(II): 자기가치감과 우울 및 비행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0(1), 15-26.
- 김희화(1998).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발달: 환경변인 및 적응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희화(2001). 청소년의 집단 괴롭힘과 학교생활 특성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 연구*, 8(2), 119-142.
- 도현심, 최미경(1998).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또래 경험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19(2), 19-15.
- 박경리, 김경연(2001). 아동의 영역별 자아존중감에 대한 어머니의 지지 및 또래수 용도의 영향: 단짝친구 지지의 중재효과. *아동학회지*, 22(4), 85-97.

- 박진규(2000). 청소년 집단 따돌림(왕따) 현상에 대한 사회·문화적 일 관찰. *청소년학 연구*, 7(2), 39-71.
- 양계민, 정현희(1999). 학교폭력이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가해자, 피해자, 일반 학생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5(2), 91-104.
- 양원경(1999). 또래수용성 및 또래괴롭힘과 남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경남(2001). 아동의 또래괴롭힘과 관련변인간의 인과관계. -아동의 행동문제, 내외 통제소재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9(8), 37-52.
- 이상균(1999). 학교에서의 또래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 이점숙, 유안진(1999). 개인적인 요인과 사회적 요인에 따른 직접적인 괴롭힘과 관계에서의 따돌림. *아동학회지*, 20(3), 107-121.
- 이춘재, 광금주(2000). 집단따돌림 경험유형에 따른 자기개념과 사회적 지지.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3(1), 65-80.
- 이해경, 김혜원(2000). 폭력노출이 집단괴롭힘 가해와 피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변인들과의 상호작용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3(1), 95-113.
- 장휘숙(1997). 청년기 애착과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간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4(1), 88-105.
- 최미경, 도현심(2000). 또래에 의한 괴롭힘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단기 종단적 연구: 애착 및 우정관계의 역할. *아동학회지*, 21(3), 85-105.
- 최보가, 임지영(1999). 또래괴롭힘이 아동의 외로움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7(5), 111-121.
- 한중철, 김인경(2000). 또래 따돌림과 심리사회적 부적응.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2), 103-114.
- 황성숙(1998). 학교내 집단 괴롭힘에 대한 일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 Abouserie, R. (1994). Sources and levels of stress in relation to locus of control and self-esteem in university students. *Educational Psychology*, 14, 323-330.
- Anderman, E.M. & Kimwari, David M. S. (1997). Victimization and safety in schools serving early adolescent.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7(4), 408-438.
- Baron, R. M. & Kenny, D.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6), 1173-1182.
- Berndt, T.J. (1979). Developmental changes in conformity to peers and par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15(6), 608-616.
- Bosworth, K., Espelage, D. L., & Simon, T. R. (1999). Factors associated with bullying behavior in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9(3), 341-362.
- Brown, B. B., Clasen, D.R., & Eicher, S. A. (1986). Perceptions of peer pressure, peer conformity dispositions, and self-reported behavior among adolesc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22(4), 521-530.
- Buhrmester, D. (1990). Intimacy of friendship,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adjustment during preadolescence and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1(4), 1101-1111.
- Cleary, S. D. (2000). Adolescent victimization and associated suicidal and violent behaviors. *Adolescence*, 35(140), 671-682.
- Crick, N. R. & Bigbee, M. A. (1998). Relational and overt forms of peer victimization: A multiinformant approach.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6, 337-347.
- Crick, N.R. & Grotpeter, J. K. (1995).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social psychological

-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6, 710-722.
- Cooper, M.L, Shaver, P. R., & Collins, N. L. (1998). Attachment styles, emotion regulation, and adjustment in adolesc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5), 1380-1397.
- Egan, S. K. & Perry, D. G. (1998). Does low self-regard invite victimiz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4(2), 299-309.
- Gavin, L. A. & Furman, W. (1989). Age difference in adolescents' perceptions of their peer groups. *Developmental Psychology*, 25(5), 827-834.
- Hanish, L. D. (2000). Children who get victimized at school: what is known? what can be done. *Professional School Counseling*, 4(2), 113-119.
- Hirsch, B. J. & Rapkin, B. D. (1987). The transition to junior high school: A longitudinal study of self-esteem, psychological symptomatology, school life, and social support. *Child Development*, 58, 1235-1243.
- Hodges, E. V., Boivin, M., Vitaro, F., & Bukowski, W. M. (1999). The power of friendship: Protection against an escalating cycle of peer victimiz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5(1), 94-101
- Hodges, E.V.E., Malone, M.J., Jr., & Perry, D.G. (1997). Individual risk and social risk as interacting determinants of victimization in the peer group. *Developmental Psychology*, 33(6), 1032-1039.
- Natvig, G. K., Albrektsen, G., & Qvarnstrom, U. (2001). School-related stress experience as a risk factor for bullying behavior.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0(5), 561-575.
- Olweus, D. (1993). *Bullying at school*. Oxford: Blackwell.
- Perry, D. G., Williard, J. C., & Perry, L.C. (1990). Peers' perceptions of the consequences that victimized children provide aggressors. *Child Development*, 61, 1310-1325.
- Rice, K. G. & Cummins, P.N. (1996). Late adolescent and parent perceptions of attachment: An exploratory study of personal and social well-being.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5, 50-57.
- Rigby, K. & Cox, I. (1997). Cooperativeness and bully/victim problems among Australian schoolchildre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7(3), 357-368.
- Rigby, K. & Slee, P. T.(1991). Bullying among Australian school children: Reported behavior and attitudes toward victims.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1(5), 615-627.
- Rigby, K. & Slee, P. T. (1993). Dimensions of interpersonal relation among Australian children and implications for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3(1), 33-42.
- Rosenberg, M., Schooler, C., & Schoenbach, C. (1989). Self-esteem and adolescent problems: Modeling reciprocal effect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s*, 54, 1004-1018.
- Rosenberg, Schooler, Schoenbach & Rosenberg (1995). Global self-esteem and specific self-esteem: Different concepts, different outcom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0, 141-156.
- Salmivalli, C., Kaukiainen, A., Kaistaniemi, L., & Lagerspetz, K., M.J. (1999). Self-evaluated self-esteem peer-evaluated self-esteem, and defensive egotism as predictors of adolescents' participation in bullying situations. *Personality Social Psychology Bulletin*, 25(10), 1268-1278.
- Schwartz, D., Dodge, K.A., & Coie, J.D. (1993). The emergence of chronic peer victimization in boy's play groups. *Child Development*, 64, 1755-1772.
- Slee, P.T. (1994). Situational and interpersonal correlates of anxiety associated with peer victimization.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25(2), 97-107.

- Tritt, C. & Duncan, R. D. (1997).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bullying and young adult self-esteem. *Journal of Humanistic Counseling, Education & Development, 36*(1), 35-44.
- Young, Jr., G.R., & Rathge, R. (1990). Adolescent stress and self-esteem. *Adolescence, 25*(98), 333-341.
- Zakrski, A. L. & Coie, J. D. (1996). A comparison of aggressive-rejected and nonaggressive-rejected children's interpretations of self-directed and other-directed rejection. *Child Development, 67*, 1048-1070.